

부산 달군 전한길... “尹 비상계엄은 국민 일깨운 계몽령”

〈한국사 일타강사〉

세이브코리아 집회 참석... “탄핵 반대” 목청 터져라 외쳐
줄탄핵 야당·편파 보도 언론·헌재 검은 실제까지 알려
강남·광화문에 이어 인천·대전 등서도 동시다발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울부짖는 마음으로 토로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1일 부산 일대를 애국 함성으로 뜨겁게 달군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목청껏 외쳤으며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현장에 모여 든 부산 시민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이에 열렬하게 화답했다. 서울은 광화문을 넘어 강남까지 이어진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전국의 탄핵 반대 국민 행동으로 이어졌다.

1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는 개신교계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현보 목사(세계교교회), 엄정길 목사(부산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종교계 인사와 박수영·김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 씨와 유튜브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연

사로 나섰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집회 장소인 부산역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오후 3시 기준 주최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윤 대통령 석방’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극좌파사원 말아라’ ‘부정선거 아웃, 입법 독재’ 등의 손팻말도 시선을 끌었다.

집회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구속 기소 및 재판 심리에 항의했다. 이날 매일신문을 통해 생중계된 전 씨의 연설은 동시 시청자 11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사로 나선 전 씨는 “굳은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가 모였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당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



1일 부산역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왼쪽). 부산역 광장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여한 전한길(왼쪽)강사와 손현보 목사.



연한길(왼쪽)강사와 손현보 목사.

나”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29차례의 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이 알아버렸다”며 “언론의 편파보도, 헌법재판소의 실제까지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목청껏 외쳤다.

이어 “우리를 극우세력이라고 하는 언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에는 찾아가서 맞글을 달고

항의 전화도 하라”고 했다. 국민을 향해 윤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전 씨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60%에 도달할 것”이라며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맞는 첫 주말이었던 1일 집회는 밤 여권 추산 수백

만여 명이 모인 전국적인 집회였다. 부산을 비롯해 서울 강남·광화문·여의도에 이어 인천·대전·춘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경찰의 이날 오후 5시20분 기준 비상계엄 추산으로는 3만8000명이 모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방지대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집회를 열었다.자유대한호국단은 강남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단위 집회는 특히 윤 대통령 측 계엄 주장인 ‘부정선거론’에 대한 발언에 집중됐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전 씨도 “문형배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이 깊고, 과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제동, 김여준 등 좌편향적 인사들을 팔로우해왔다. 하지만 문제 불거지자 계정을 삭제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증거인멸과 다름없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한 독서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사조적이다. 이러한 인물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헌재의 재판 심리 공정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장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전국 열혈 청년까지 가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맞 올렸다

1일 여의도 준비모임... 100여 명 청년·시민 참여 2월 중순 출범
단장 석동현 “헌재, 초스피드 심판... 탄핵 반대 여론 보여줘야”
“불법에 불법 자행 대통령 탄핵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계획”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인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20·30 청년과 시민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 출범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변호인단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과 헌법 기치인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1일 국민변호인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하고 뉴미디어 및 정책과 지역본부 구성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나

눴다. 석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해당 모임에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가 맡았으며 청년대변인은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 교체’를 이뤘던 ‘한남동 관저 집회’에서의 열기를 청년시민이 함께 전국 단위 지지자 모임을 꾸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일찍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법치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전국 많은 청년·시민

과 함께 하고 싶어 모임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윤을 띄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중중·중복 세력이 활개 치는 상황을 제어하고 바로잡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자신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꿈에도 상상 못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적으로도 내란은 집권 세력에 대한 권력 찬탈을 위해 진행되는 폭동으로 더 이상 취할 권력이 없는 대통령의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마비’에 가까운 탄핵 남발·입법 독재·예산 자르기가 두 시간짜리 계엄령 선포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처벌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며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로 초고속 재판을 진행하며 2월 말 3월 초쯤 심판을 향해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은 매우 중요하며, 민심이 천심인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민의에 부합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국민변호인단의 더욱 많은 관심과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알리기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취지를 알렸다.

이날 배 변호사 진행으로 이어진 준비 모임에서 영상과 SNS 및 앱 등으로 구성되는 ‘뉴미디어’ 캠페인·집회·홍보를 맡는 ‘기획’ 부문과 세대·이슈·전단 등을 맡을 정책

이 오고 갔다. 배 변호사는 “전 국민적으로 파악되는 국회·종북·반국가단체·부정선거 이슈 등의 계엄 취지를 전국민적으로 알리는 범국민 굿즈 캠페인 및 청년 집회·거점별 과제당지역 순회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과 형사절차 과정에서 불법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사법부·헌법재판소에 대해 분노하는 20·30 청년들이 헌법·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알리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나설 때 나라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며 주류 언론들도 이의 실제 보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딥페이크·가짜뉴스 ‘퇴출’
경찰,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인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만연한 가운데, 경찰이 이러한 허위 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딥보이스·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연구비 총 9억 원을 약 3년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허위 조작 콘텐츠에 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형 허위 조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성형·텍스트형 콘텐츠의 조작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 인력은 실제 인물처럼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와 가짜 음성을 생성하는 딥보이스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수사 중이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영화 <타짜>의 실제 모델 장병은 ▶ 파란만장한 인생역정

▶ 구글 네이버 검색 ‘타짜’ 야채농장 홈페이지 도서구매 가능 ▶ 직접 전화구입 ☎10-4874-3935

★ 뇌물판사 시삼세스를 산 채로 가족을 벗겨 처형한 페르시아 황제 캄비세스-죄 지으면 반드시 처벌한다★



한국판 천로역정
노루가 쓸개 없는 까닭은?
뇌물판사 죄지은 것남 안준다

